



'아트:광주:11' 개막 지난 31일 미술품을 사고 파는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11'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오는 4일까지 61개 갤러리가 참여해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한다. 지역작가로는 황영성·우재길·김일권·최재영·이이남씨 등의 작품이 출품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적위주 대학장학금 빈곤층 소외

광주·전남 대학들 50~70% 성적 우수자·저소득 10%대

알바→저학점 '교육 빈곤' 악순환...저소득층 배려 절실

#1. A대학 2년 김모(22)씨는 개학이 코 앞이지만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다. 흠뻑 땀을 흘리며, 두 동생과 함께 사는 김씨는 큰 아들인 탓에 학기중은 물론 방학에도 '알바'를 한다. 저녁 과외와 심야 편의점 알바로 매달 60만원 가량을 번다. 3월부터 여섯 달을 벌여 등록금 330만원을 며칠 전 입금했다.

대학들의 장학금이 성적 위주로 배정되면서 정작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가족 생계 책임지랴, 학비 마련하랴 사실상 공부할 시간이 없다. 피땀으로 번 돈은 고스란히 학비로 들어간다. 한 학기 등록하고 나면, 또다시 알바를 뛰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다.

면서 장학금 배정을 성적 위주로 배정하면서 '저소득층' 배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학금을 예전과 같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격려금 성격에서 탈피, 입학 학생들이 4년간 무사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려금 성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B대학 3년 이모(23)씨는 개학을 나흘 앞둔 지난 28일 유럽 배낭여행에서 돌아왔다. 1학기 동안 공부에만 전념한 탓에 학점이 4.3점을 넘어 '반장학생'으로 선정, 등록금 절반(170만원)을 면제받았다. 여기에 부모님이 칭찬과 함께 주신 돈을 합해 여름 내내 유류 건축물 견학 여행을 하고 왔다.

반면 가정 형편이 여유있는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등을 오가며 공부에 올인한 탓에 알바생 보다 훨씬 쉽게 장학금을 타고 있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알바'를 통해 낸 등록금을, 여유있는 생활에서 공부에만 전념한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받아 사용하는 상황인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대학들이 장학금 총액 중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책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학금은 10%미만이 상당수고, 많아야 15% 내외다. 전남대는 2010년 장학금 173억원 가운데 성적 장학금이 89억원으로 52%에 달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은 30억원으로 17%에 불과하다. 조선대는 161억원 중 성적 장학금이 44.1% (71억20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금은 13.8% (22억2000만원)이었다.

동신대는 성적우수 장학금 비율이 41.6%에 달하며, 가계 곤란 학생 장학금은 16.9%이다. 광주대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71.7%나 되며, 생활 곤란 장학금은 10.8% 정도다.

광주지역 주요 사립대 기준으로 보면, 성적 장학금 비율을 절반 가량 줄여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돌릴 경우 학교 별로 최소 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년 100~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대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러다 숨지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대학들의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장학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정폭력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접수기간: 9월 9일(금) 까지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인기가수 공연·경연...향토 특산물 한미당 잔치 '아줌마 축전' 내일 개막

3일간 무등경기장서 매일 1천명에 경품

지역민의 큰 관심 속에 준비돼 온 '제1회 아줌마 축전'이 드디어 2일 광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광주일보가 호남지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화목하고 안전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 사회 조성의 중추역할을 하는 주부들이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충전할 수 있는 즐거운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9면>

또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전시·판매해 도시와 농촌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도 개설된다. 특히 이번엔 전시되는 특산품은 시중가격 보다 싸게 판매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에 고민하는

주부들의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마당·열린마당·참여마당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 첫 날 오후 2시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는다. 저녁에는 남진·현숙·조항조·윤태규 등 인기가수가 축하공연을 펼친다. 개막식전후로는 아줌마가요제·실버음악단 공연 등 식전·식후공연도 갖는다. 또 개막식 후에는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아줌마 팔씨름대회·댄스경연 등 흥겨운 무대도 열린다. 특히 아줌마가요제에는 100여명이 참가해 치열한 노래자랑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날에는 각 시·군예술단 경연·아줌마골든벨·시낭송대회가 열리고, 인기가수 유리상자·해바라기가 출연하는 가을 속 사랑이야기 7080 콘서트도 펼쳐진다. 셋째 날은 각 시군예술단 경연 결선과 사랑나눔 문화콘서트·다문화가족 장기자랑에 이은 아줌마가요제 결선으로 화려했던 3일간의 축제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경품이 마련돼 매일 1천여명에게 지급되며 특히 개막식날(2일) 오후 1시에는 선착순 1000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서승원실업기자 swseo@

예금보험공사 100% 지분 소유 예쓰·에나래저축銀 보해·전주·대전저축銀 인수

5000만원 이하 예금 추석전 인출 가능할 듯

2차레나 매각이 무산된 보해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에나래저축은행에 개별 인수된다. 이에 따라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빠르면 추석 전에 예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예쓰·에나래저축은행의 보해·전주·대전저축은행의 인수를 승인할 계획이다. P&A 방식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은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앞서 인수된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부산·중양부산·도민저축은행(현 대전저축

은행) 등도 각각 우리금융지주와 대신증권 등에 P&A 방식으로 넘어갔다. 보해·전주·대전저축은행은 더 이상 패키지가 아닌 개별로 인수되며 아직 보해는 예쓰와 에나래 중 어느 곳으로 인수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예쓰 등 가교저축은행은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나 정부가 관여 출자해 설립한 금융회사로, 부실 금융회사가 청산될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다. 현재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팀 관계자는 "예쓰와 에나래가 현재 영업중이기 때문에 보해 등의 예금 계약들이 전반기 영업을 정상화하면 추석 이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원회 서상훈 위원장은 "아직 5000만원 초과자들에게 대한 구체적은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면담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국회에도 피해자 대책을 요구하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세계적 명차들은 왜 포스코에 주목할까요?

미래의 자동차를 만드는 꿈의 소재, 포스코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더 가벼우면서도 강한 강판을 사용하면 연비 개선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트윈강(TWIP: 초고강도강)을 양산하며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 TWIP: Twinning Induced Plasticity



더 큰 세상엔
더 많은 포스코가
필요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포스코센터 음악회 이벤트에 참여하세요